



피서철 해변 청소년 선도 아티치 캠페인



여성단체 해당화리트리클럽 간담회

부안경찰서(서장 임성재)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초소형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 성·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은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부안군민 모두가 안전한 부안군 만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00일 동안 '특 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추진분부를 구성하고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부안군 관내 성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여성·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

부안서는 피서철 격포·고사포·변산·모항 해수욕장의 공중 화장실 및 샤워실을 비롯한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부안군과 합동으로 '여성안심점검반'을 구성, 렌즈탐지형·전파탐지형 등의 전문 장비로 관내 불법카메라 설치 우려지역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특히 변산면 대명리조트 등 주요 물놀이 시설 관리자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민·관·경이 협력, 여성범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화장실 내 구멍 메꾸용 스티커 및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자체 제작 후 부착은 물론 격포 생활안전협의회에서는 피서지를 찾는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촬영이 중대 범죄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12개소에 부착했다.

또 렌즈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등의 근절을 위해 상습 또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3년 이내 2회 이상 재범을 저지른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은 원칙적 구속 수사 및 인시조치 제도 등을 활용한 신속한 가해자를 격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부안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9%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노령인구가 범죄로부터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안경찰서와 대한노인회가 협력, '안심동행폴'이란 관내 노인 재능나눔 사업 참여자 600여명이 사전에 노인학대 등 범죄 예방 교육을 수료, 이를 토대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해 또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물론 노인학대 등에 대한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공감 소통하며 알기 쉽게 범죄 예방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우리 마을 치안 관심 유도는 물론 재능 나눔 어르신들의 치안 참여로 공동체 치안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여기 에다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울타리 안을 벗어나 우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기청소년들과 주기적 면담을 통한 선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난해 범죄 피해를 입고 방황하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한 선도



임성재 서장

불법촬영·성폭력·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대상 악성범죄 엄정처벌 요구 목소리 잇따라

대한노인회와 협력 마을회관 경로당 등 방문 상담원 역할 특화

위기청소년들과 주기적 면담 상반기 피해자 보호 우수사례 선정

활동이 2018년도 상반기 경찰청 피해자 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적극적 선도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훈련 실시 및 현장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노력
여성대상범죄 발생 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성·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를 대상으로 FTX를 실시하여 초동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경찰, 수사관 등 현장 경찰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성폭력상담소장이 참여하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세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생활안전과장 등이 지·파출소를 방문, 성범죄 2차 피해 사례 등 수사과정 상 미흡했던 사례를 통해 보완할 점을 교육하는 지역관서 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 지문등록 등 적극 추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될 경우 조기 발견이 어려운 점을 고려,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지문·사진·인적사항 등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해두는 '사전 지문등록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관내 어린이·노인 보호시설 등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전 심백여명 등록 완료했다. 지난 3월 치매노인 실종 제로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부안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사전등록·실종수색 등의 업무 협업은 물론 관내 다중이용시설 5개소가 참여하는 코드야담(실종예방지침) 운영 협의회 운영으로 실종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히 구축했다.

▲'드론 재능기부'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으로 실종자 조기 발견에 기여

경찰인력 및 장비만으로는 수색에 어려움이 있고 치매 환자는 발견이 지체될수록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 부안경찰서-부안새만금항공 간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활용'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접근이 곤란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수색을 하기 위해 부안군 지역에 익숙한 현지 드론 운영자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색을 통한 실종자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실종자 수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성범죄 2차피해 예방 수사관 교육



드론 재능기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